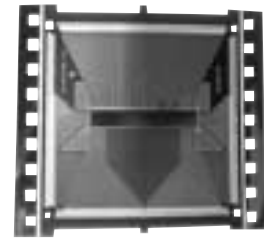


〈Venture Digest〉는 벤처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립니다.

신제품, 신기술, IR소식 등 알고 싶은 뉴스를 보도자료(기사, 사진)와 함께 협회 홍보팀으로 보내주세요.

협회 홍보팀 박미선 주임(02-6009-4100, 내선 301, Fax, 02-6009-4115, E-mail : pmsun@kova.or.kr)



하우리, PC용 통합보안제품 출시

하우리(대표 권석철)는 지난 1일 PC용 통합 보안제품인 '바이로봇 데스크톱 5.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바이러스나 웜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백신 기능뿐 아니라 해킹을 차단하는 방화벽, 스파이웨어 및 애드웨어 진단, 스팸메일 차단,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접근제어 기능 등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CBD)으로 만들어져 PC의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보안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또 보안패치 설치 유무와 공유폴더 및 오픈포트 계정 현황, MSN 메신저 등 개인PC 보안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다. 권석철 대표는 "웜, 스파이웨어, 해킹프로그램, 스팸메일 등 PC를 노리는 각종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통합보안제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하우리는 이 제품 출시를 기념해 8월 말까지 30% 할인 판매하고 기존 바이로봇 제품군 사용자에게도 할인된 가격에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사이텍소프트, 초고속인터넷 측정기 중에 대량수출

네트워크 및 모바일 솔루션 전문기업인 사이텍소프트(대표 이강동)는 지난 6월 30일 휴대용 초고속인터넷(xDSL용) 측정기인 '닥터 디에스엘 투(Dr.DSL II)'를 중국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친 중국 신식산업부의 품질인증 테스트에 통과한 이 제품은 중국의 초고속인터넷 장비 전문 유통업체인 블레이드(Blade)와 로드스타(Lodestar)를 통해 차이나텔레콤, 이나네트웍커뮤니케이션(CNC)에 공급하게 된다.

초도물량 500대(약 5억원)는 7월 초에 선적하고 연말까지 5000대를 공급하게 된다. 또, 추가적으로 5000대 규모의 추가 공급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총 100억원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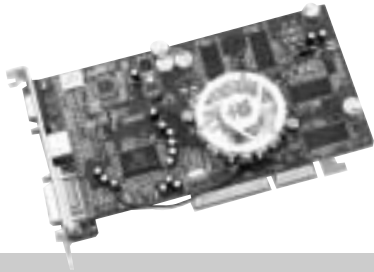
지난해 중국 상해, 북경에 200대 정도의 ADSL 전용제품인 '닥터 디에스엘 원(DSL I)'을 수출했던 사이텍소프트는 이번 수출 계약으로 본격적인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토마토LSI, TFT LDI 위주로 매출 구조 개편

토마토LSI(대표 최선호)는 지난 6월 현재 주 매출원인 STN LDI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이 높은 TFT LDI 비중을 강화, 3/4분기부터 매출 구조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마토LSI는 지난해 말 개발을 마치고 양산중인 26만 컬러휴대폰 TFTLCD용 IC 'TL1761' 매출이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QVGA(240×320) 및 CIF(288×352)급을 지원하는 IC 개발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조만간 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이 수준의 TFT LDI는 일본의 르네사스만이 생산 중이다.

토마토LSI는 수익구조 개편과 함께 해외 영업도 강화한다. 회사 측은 중국 상해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고 대만, 심천, 일본 등의 지사와 함께 4개 지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루트코리아, 그래픽카드 3종 출시

애플루트코리아(대표 이태화)는 지난 6일 ATI의 보급형 그래픽 VPU인 ATI 9550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픽카드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64비트의 메모리 구조를 갖춘 ▲엑스컬리버 9550 128MB 64비트를 비롯해 ▲128비트 메모리 구조의 엑스컬리버 9550 128MB 128비트 ▲VIVO (Video In/Video Out)를 지원하는 엑스컬리버 9550 128MB VIVO 등 총 세 종류다.

ATI 9550 128MB 64비트는 동일한 코어 클럭 250MHz에 메모리클럭 400MHz를 갖추고 있으며 64비트의 메모리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PC방이나 사무용으로 적합하다.

ATI 9550 128MB 128비트 VIVO는 ATI 9550 128MB 128비트와 동일한 사양에 VIVO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네오솔, 세계 최초 OLED 채용한 PMP 출시

세계 최초로, 유기EL(OLED) 풀 컬러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TV수신이 가능한 휴대용 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가 출시됐다.

네오솔대표 이철호는 지난 7일 2.2인치 유기EL 풀 컬러를 적용하고 공중파 TV방송, MP3P, 동영상 파일 재생 등 멀티기능의 PMP인 '클리오드(Cliod, 모델명:TN-A1002)'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밝혔다.

이 제품은 유기EL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시야각이 자유롭고 최소 소비전력으로 디지털급 화질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NTSC 및 PAL 방식의 TV튜너를 내장해 공중파 및 지상파 TV 수신이 가능하고, 이 화면을 모니터 대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 및 강의 내용을 실시간 녹화하고 파일로도 전송이 가능하다.

이번 제품은 1.0인치의 초소형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채용해 2.5GB와 5.0GB 등 두 종류를 출시할 예정이다.

엠포스, 버스노선 안내 정보

지식발전소대표 박석봉의 인터넷 포털 엠포스에서는 지난 1일 개편된 서울시 버스노선을 이용자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 '엠포스 서울시 버스노선 안내서비스(<http://bus.empas.com>)'를 선보였다.

버스노선 검색서비스는 요금체계와 환승시설, 빠른길 검색, 신규노선 비교검색 등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엠포스 지식거래소에서는 질문답변형식으로 기존의 버스번호를 검색하면 새로운 버스번호와 노선을 알려준다.

특히 엠포스 통합 검색창에서 기존의 버스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변경된 버스노선과 관련된 정보를 지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일본통신 사업자 파워드컴과 제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지난 7월5일 일본 포털사이트 카페스타(www.cafesta.com)를 운영하는 일본의 통신 사업자 파워드컴(대표 샘 나카네)과 합작법인 '타운'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도쿄 시나가와 파워드컴 본사에서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다음은 8억3000만엔(약 88억원)을 투자, 새로운 합작법인인 타운의 지분 65%를 확보했으며, 파워드컴은 타운의 지분 35%를 갖게 됐다. 양사는 법적 절차를 걸쳐 오는 8월 1일 새 합작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합작법인 타운은 다음이 보유한 콘텐츠와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를 파워드컴의 안정된 인프라에 통합한 커뮤니티 기반의 포털로 오는 9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타운은 온라인 광고와 거래형 수익서비스를 주요 비즈니스모델로 할 예정이다.

미리넷, 시스코와 ATP 파트너십 체결

미리넷(대표 이상철)은 지난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시스코시스템스와 광전송 부문에 관한 ATP(Advanced Technology Provider) 파트너십을 체결, 이 분야 최고의 기술력과 영업력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스코 ATP-옵티컬'은 광통신 분야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능력 및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제한적인 파트너만을 선발하여 차별화된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미리넷은 시스코의 광전송관련 전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한국내 공급권을 가지게 되며 망설계, 판매, 사업 실행, 기술 지원 등 사업 전반적인 진행을 수행하게 된다. 미리넷은 지난 13일부터 은행 전용망 사업에 시스코 MSPP 장비를 납품하고 이를 시작으로 금융권 및 통신사업자 등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손오공, 코스닥 등록 승인 손오공(대표 최신규)은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으로부터 지난 7일 코스닥 등록을 승인받았다. 손오공은 완구·게임 제작업체로 지난해 매출 579억6400만원, 경상이익 75억6200만원, 순이익 55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액면가는 500원으로 주당 발행예정가는 1만2000~1만5000원이다.



백산OPC, 코스닥 대상 백 산OPC(대표 김상화)가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가 뽑은 '제1회 코스닥대상'에 선정됐다. 선정위원회측은 백산OPC에 대해 "뛰어난 고유기술을 보유한데다 2000년 이후 매년 매출 41.0%, 영업이익 50.8% 고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관련 회사와 내부거래 및 채무보증에 없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백산OPC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지난해에 356억원과 11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00억원과 2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글과컴퓨터, 상반기 매출 호조 한글과컴퓨터(대표 백종진)는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102% 늘어난 16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 이 같은 상반기 매출은 작년 전체 매출인 184억원의 90%에 달하며 한글과컴퓨터는 7월 중에 작년 전체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26억50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119% 증가했다. 한편 '한컴오피스 2004'의 상반기 매출실적은 4만 Copy(15억원)이었으며, 하반기에는 7만2000 Copy(27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